

23. 오가온천교류회관 고후, 온가

2001 년에 결성된 나마하계 태고단 ‘온가’는 오가 온천 지역에 있는 이벤트 홀 ‘고후’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열정을 갖고 일본 태고 연주에 전념하는 지역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그룹은 프로 의식보다는 노력을 중시하고 있어 오가 지역 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연주회의 출연은 **출연 의뢰를 받더라도** 대개 거절하고 있습니다. ‘온가’의 연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주자들은 최대 15 분간 설새 없이 태고를 두드리고 끊임없이 징을 울리는 경이로운 지구력을 보여줍니다.

‘온가’의 나마하계 태고 공연은 대표작인 ‘신잔’으로 시작됩니다. 이 공연은 나마하계의 무서운 움직임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격렬한 태고 연주가 특징적입니다. 공연을 본 관객이 눈 덮인 오가의 신성한 산속에 있는 듯한 느낌에 빠져드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.